보현회, 제23회 한마음장애인 체육대회


부산 보현회는 11월 16일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제 23회 한마음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3년 동안 장애인을 위해 체육대회를 꾸준하게 열어오고 있는 보현회가 올해는 부산 광안리를 방문하고 걷기대회로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는 11월 16일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제 23회 한마음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체육대회는 걷기대회로 진행됐으며 안성이 보현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들과 교사 및 평화의 집, 성우원, 가정이 있는 장애인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매년 체육대회를 열어온 보현회는 국가 복지정책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장애인들과 우정을 쌓고 최초 보현회 설립 목적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걷기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성이 회장은 "20년 전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선물을 선사하는 게 서로를 위한 큰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복지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진 것도 사실이다"며 "그래도 나눔과 만남을 멈추기 보단 보현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장애인들의 행복을 기원해주고자 오늘 이렇게 걷기대회를 열고 함께 산책을 한다"고 말했다.

보현회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위해 점심 공양을 비롯해 후원금 300여 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곡당 일타 대종사 20주기 추모재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20주기 다례재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동곡문도회 문장 혜국 스님과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주지 돈관 스님,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前 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은해사 대중 스님, 이연화 신도회장, 이봉오 선화여고 교장 등 5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된 다례재에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스님과 신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큰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원력으로 포교와 교육, 가람 수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곡문도회장 혜국 스님은 "20여 년 동안 해마다 여법하게 마련해준 본사 대중 스님들께 감사하고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대중들은 일타 대종사의 생전육성 법문을 경청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디야나 선원, 제2회 집중명상 수행 성료



보디야나선원(선원장 혜안)은 11월 15~17일 경주 황룡원에서 제2회 집중명상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참가자들은 황룡원에 도착하자 '묵언'이란 단어가 적힌 명찰을 받으며 핸드폰을 운영진에게 맡겼다. 운영진들은 숙소에 있는 TV 리모콘을 모두 거뒀으며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오롯이 명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선원장 혜안 스님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한거를 이룰 때 섬세한 호흡에 집중하고 깊은 명상을 경험할 수 있어 외부 모든 자극을 차단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디야나선원 집중명상은 예불과 법문, 그룹명상, 걷기명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80여명이 동참했다. 051)959-010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신중도 '환지본처' 하다

신중도 환수봉안식 봉행

제막식 후 헌향 및 헌다 예경
27일까지 보제루서 일반 공개
문화재 지정 신청해 가치 인정
"문화재 환수 위해 적극 노력"



부산 범어사는 11월 20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봉행했다. 내빈들이 제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해외로 반출됐던 범어사 극락암 신중도가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내빈들이 가려 둔 하얀 제막 천을 걷어내자 신중도가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불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신중도에 헌다와 헌향으로 공경하며 예경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1월 20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범어사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봉행했다. 환수봉안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 소임 스님들과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안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보제루로 자리를 옮긴 대중들은 신중도 제막을 지켜보며 합장했다. 이어 제막 후 범어사 마하다회가 육법공양으로 예경을 올렸으며 주지 경선 스님과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이 본지환처한 신중도에 헌향하고 헌다했다.

범어사 신중도는 11월 27일까지 불자와 일반인이 참배할 수 있도록 보제루에서 공개되며 이후 성보박물관에 봉안된다. 앞으로 범어사는 신중도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진행하고 문화재 지정 후 보존 처리를 거쳐 현재 신축 중인 성보박물관에서 전시 할 예정이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는 이번 극락암 신중도 환수를 계기로 현재 도난 되거나 유출 된 범어사와 교구말사 성보들을 온전하게 제 위치로 모셔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신중도를 범어사에 다시 모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경외의 대상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의 보물로 그 가치를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범어사는 "신중도 환수는 짧은 기간 긴박하게 이뤄졌고 범어사와 조계종 총무원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긴밀하게 협력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0월 1일 국외 소재 문화재 검토 중 미국 LA 경매시장에 조선후기 신중도 1점이 출품 된 것을 발견, 범어사 극락암 신중도임을 확인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해외에 있는 성보를 범어사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 범어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환수추진단을 구성했다. 10월 6일 경매에 참가해 환수했으며 10월 30일 이운을 완료해 11월 5일 환수 공개식을 총무원에서 진행했다.

범어사 신중도는 1891년 화승인 민규 스님이 비단에 조성한 것으로 가로 144.8cm, 세로 146.1cm 크기이다.

신중도는 예적금강과 마리지천, 위태천이 중심에 위치하며 좌우에 천부와 팔부중 호법신을 배치해 안정감이 높고 104위 신중도 형식을 계승한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19세기 후반 불화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통도사, 문화와 함께하는 화엄세계

입재 11월 27일, 12월 25일까지
결집불사 · 피아노 공연도 진행


양산 통도사는 11월 27일~12월 25일 설법전서 제49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모습.

국내 최대 화엄산림법회가 열리는 통도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화엄산림 기간에는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백건우 피아니스트 초청공연도 진행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설법전에서 제49회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를 연다.

법회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방장 성파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해 혜남, 용학, 수진, 광우, 법산, 각성, 보광, 동훈, 선행, 산옹, 덕민, 정우, 자광, 돈관, 지현, 반산, 심산, 성우, 양관, 도일, 우진, 인해, 범해, 수불, 종범, 지안, 정념, 선지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회향일에는 오전 10시에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으로 회향된다.

이번 화엄산림법회에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된다. 우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조계종에서 진행하는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동참하고 12월 15일 오후에는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이어진다.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화엄산림법회는 1925년 극락암 경봉스님이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일염불회를 개설한데 이어 1927년 보우 스님, 해담 스님과 함께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삼칠일간 법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경봉 스님은 젊은 날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 봐야 자신의 몫은 반 푼 어치도 없다.'는 〈화엄경〉 구절을 읽고 발심해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 근대 선지식으로 참선 수행을 하며 〈화엄경〉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인용했고 '화엄'(華嚴)이라는 두 글자를 쓰며 "내 평생 공부가 여기에 담겨있다"라 할 정도로 〈화엄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

경봉 스님은 통도사 백련암, 김해 연화사, 반야사, 밀양 무봉사 등에서 화엄산림과 함께 법화경 산림, 유마경 산림을 개설하고 법회를 진행했지만 현재 화엄산림 법회만 전해지고 있다.

화엄산림법회는 매년 1만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는 법회이며 법회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예불 후 이어지는 법성게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으로 유명하다. 일요일에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회향일에는 소대의식도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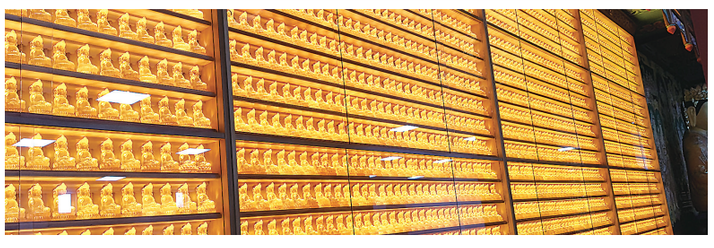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